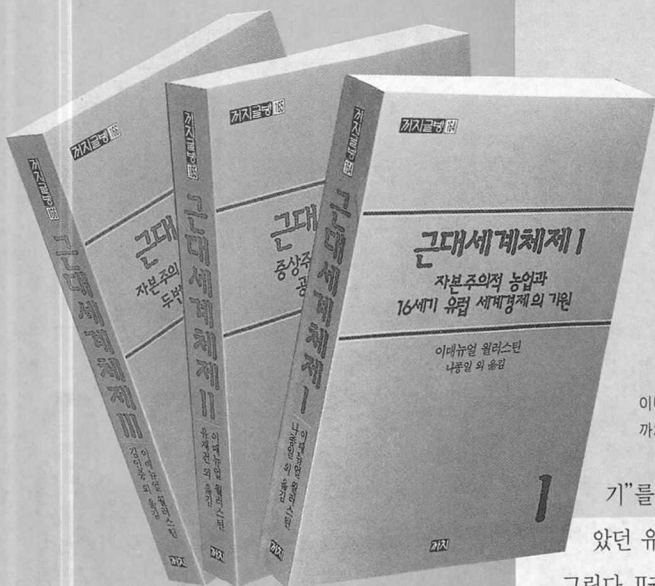


# 근대 세계체제의 실상 총체적으로 분석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

백영경 | 가톨릭대 강사



이매뉴얼 윌러스틴 지음/나종일 외 옮김  
까지/A5신/582면 내외/각 20,000원

이매뉴얼 윌러스틴이 자본주의를 하나의 역사적 체제로서 간주하고 기존의 국가나 민족을 대신해 세계체제를 분석단위로 삼았음은 이미 번역·소개된 다양한 저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모델이나 현실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념형에서 연역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의 체제로서 어떻게 작동해왔는가, 왜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왔는가, 또 그것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기술”(《역사적 자본주의》)해야 함을 역설해온 것이다.

###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분석 단위로 삼아

그러나 자본주의를 16세기에 태어나서 팽창과 위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 그 구체적인 역사적 궤적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감하는 독자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는 그의 방법만이 소개됐을 뿐, 정작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 근대 세계체제의 역사는 이제야 비로소 소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간된 《근대세계체제 I·II·III》은 윌러스틴의 주저이며 출세작으로 근대 세계체제의 역사적 실상을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다섯권의 연작 가운데 지금까지 간행된 세 권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I권은 1450~1640년경에 이르는 이른바 “장기의 16세

기”를 다루며, 중세 말 봉건제가 위기를 맞았던 유럽에서 세계경제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다. II권은 1600~1750년을 자본주의 세계경제 팽창에 뒤이은 수축국면이자 공고화의 시기로 파악하면서, 네덜란드라는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을 그린다. 1730~1840년대를 다룬 III권은 세계경제의 두번째 팽창이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은 동떨어져 일어난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패배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동전의 앞뒷면임을 주장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의미의 통사와는 달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이룬다든가, 혹은 체제를 설명하는 데 전형적인 보기로서 도움이 될 때만 특정 사건들을 기술하고자 했다고 윌러스틴은 말한다. 결코 얕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은 책이지만, 많은 역사가와 사회과학자의 성과에 기초해 근대사의 무수한 논쟁을 재해석하는 이 책은 힘들게 읽는 수고를 저버리지 않는다.

###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 비판적 전망 제시

본디 아프리카 정치 전공자였던 윌러스틴은 《근대세계체제 I》을 계기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관한 전문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독립을 전후한 시기의 아프리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신을 근대적인 국가구조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의 유럽으로 이끌었다고 그는 I권의 서문에서 밝힌다. I권이 분석단위로서 세계체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론적 입지를 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면, II권을 거쳐 III권에 이르면 이미 자기검증을 마친 듯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또한 I권에 나타난 대안적 세계체제로서의 사회주의 세계정부에 대한 언급이나 “근대세계가 저지른 그 온갖 잔인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태어난 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좋은 일이다”는 식의 근대예찬은, 바로 80년대 이후 그 자신에 의해 공박당하고 있는 바다.

71년 I권의 작업을 시작한 이후 기존의 지적 패러다임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분석에 이를 수 없음을 명확히 깨닫게 된 그는, 근대세계의 성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잔여수명이 25~50년 정도라고 볼 정도로 비관적이다.

《근대세계체제》는 총 네권 예정에서 다섯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된 II권과 III권에서 다루는 시기의 기점과 종점도 원래 I권에서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도 역시 ‘역사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윌러스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는 하나 《근대세계체제》를 자국어로 읽는 나라의 수는 몇 되지 않는다. 더구나 거의 160쪽(번역본 분량)에 달하는 이 방대한 저서가 전문 역사 연구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옮겨졌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윌러스틴이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국이 여전히 역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며,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세계체제론적 분석이 효용과 의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